

출제 개요

2017 학년도 경희대학교 인문·체능계 수시 2차 모의 논술고사는 총 두 문제를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학력 수준에 맞추어 범교과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분석적 추론 능력, 비판 능력 등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사고 능력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모의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및 ‘윤리와 사상’ 등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자기 개발’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 ‘자기 개발’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본성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발견인가? 아니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 나가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수험생들에게는 당연한 현실이자 미래의 자화상을 확립해 나가는데 매우 친근하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기 개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공부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현실적, 나아가 미래적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등의 문제는 대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본 모의논술고사는 학생들에게 ‘자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새기고, 나아가 삶에 대한 사고의 폭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제시문은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철학적 내용보다는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본 모의 논술고사는 ‘윤리와 사상’ 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을 통해 ‘자기 개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여 그 핵심을 파악하고 나아가 논리 정연하게 서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본 모의 논술고사에서는 경희대학교 수시 논술의 정형화된 패턴에 따라 총 2문제를 출제하였다. 각각의 제시문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가] 구본형 지음, 『깊은 인생』, (휴머니스트 출판, 2011), 52-53쪽.

[나] 김난도 지음,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오우아, 2012), 31-32쪽.

[다] 김영하, 『말하다』, (문학동네, 2015), 20-24쪽.

[라] 유치환, 「바위」, 『문학 상』, (금성, 2010)

[마] 김애란, 「큐티클」, 『포맷하시겠습니까?』, (한겨레출판, 2012), 73-76쪽.

[바] 김찬호,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 『생애의 발견』, (인물과 사상사, 2009), 72-74쪽.

각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가]는 ‘경영 혁신’의 전문가로 알려진 구본형의 글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 화자는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된 한 무용수의 화려하고 위엄 있는 춤사위를 통해 영혼을 빼앗긴 채 앞으로 걸어가게 될 인생의 길을 숙명적으로 마주하게 된다. 엄격한 가정에서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던 화자는 무용수의 공연을 통해 자신은 본래 춤꾼으로 태어났으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제시문 [나]는 김난도의 『천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작품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파종한 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없으나 몇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야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는 한 대나무 종과, 섭씨 100도라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후에도 수증기로 변환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가열을 필요로 하는 물의 예를 들며,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진전을 향한 의지를 굽히지 말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김영하의 『말하다』라는 작품에서 가져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의 절망적 상황을 예로 들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허황된 낙관주의와 근거 없는 비관주의를 경계하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제시문 [라]는 유치환 시인의 저명한 작품인 「바위」이다. 이 시는 일체의 감정과 외부의 변화에도 움직이지 않는 현실 초극의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삶의 온갖 감정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경계하면서 내면적 단련을 통해 본질적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시문 [마]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글이다. 저자는 시대의 흐름이나 세태를 대변하는 듯이 보이는 현대인의 소비 생활이 사실은 아무런 자기 만족감도 주지 못하는 가상의 충족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제시문 [바]는 공부가 시험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해 버린 현실 세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학문하는 태도의 본질을 되새기고 있는 글이다. 저자는 공부를 세상 속에 뿌리 내리면서 마음을 닦는 수행으로 묘사한다. 이는 현실의 다양한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논제 I>은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논지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문장에 대한 독해력과 비교·분석 및 서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논제 II>는 제시문 [바]의 내용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다], [라], [마]에 보이는 다양한 상황을 평가하는 문제로, 이를 통해 ‘자기 개발’의 다양한 관점을 교육적, 인문학적인 시각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